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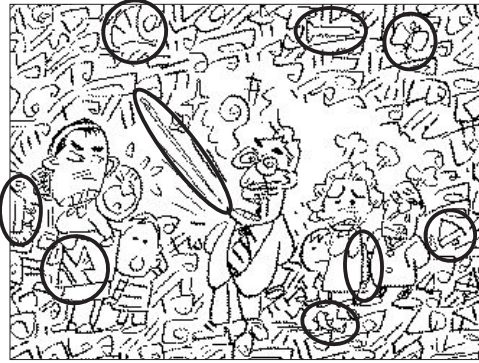
숨은그림찾기 < 95 >



찾아보세요 다리미, 칫솔, 음료, 열대어, 팬이, 사람 옆 얼굴, 종이배, 바늘, 서둘룩

의사는 처음

잘생긴 한 아가씨가 진찰을 받으러 산부인과 병원에 왔다. 의사가 그 환자에게 말했다. "먼저 옷을 벗으세요." 그러자 그 환자의 얼굴이 붉게 달아올랐다. 그런 그녀를 보고 의사가 부드러운 목소리로 물었다. "전에 한 번도 검사를 받아 본 적이 없나 보죠?"



지난주 정답

송사리, 나비, 열대어, 은행잎, 바늘, 다리미, 팬이, 고추, 뭇

그림 속에 숨겨진 사물들을 찾아보세요. 찾은 사물을 그림에 표시한 후 매주 화요일까지 신문을 오려 보내주시면 정답자를 추첨, 상품권(2만원)을 드립니다.
▶보내실 곳 : 광주시 동구 금남로 2가 20-2번지 광주일보사 여문매체부
▲당첨자 : 김현주(광주시 광산구 우산동) 윤효숙(광주시 북구 두암동)

아하! 오늘이 바로 그날

'컴퓨터 황제' 빌 게이츠 탄생

말 한마디, 움직임 하나만으로도 뉴스가 되는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인물. 보유 재산 580억 달러로 13년 연속 세계 제일의 부자. 가장 많은 돈을 사회에 환원하는 기업인. 컴퓨터 황제. 화려한 수식어가 빠지지 않는다. 바로 빌 게이츠다. 그가 만든 PC 운영체제 도스(DOS)·윈도 시리즈와 사무용 소프트웨어인 워드·엑셀·파워포인트 등은 사무실의 필수품이 된 지 오래다. 필수품 정도가 아니다. MS 윈도는 컴퓨터와 인터넷을 중심으로 한 '디지털 세상의 창'이 됐다. 그는 1955년 10월 28일 시애틀의 부유한 변호사 집안에서 태어나 1973년 하버드에 입학했지만 중퇴했다. 대학을 중퇴할 때만 해도 그의 사업 수완, 아이디어, 천재성은 눈에 띄지 못했다. 그런 그가 '컴퓨터 황제'로 올라서게 된 것은 고등학교 친구 폴 앨런과 마이크로소프트 회사를 창립하면서부터다. 거대 기업 IBM과 손잡고 그가 만든 MS-DOS를 탑재한 호환 PC를 출시하면서 스티브 잡스의 개인용 컴퓨터를 밀어내고 선두 자리를 차지했다. 하지만 동갑내기 라이벌 스티브 잡스가 1984년 내놓은 '맥킨토시(McIntosh)'가 대성공을 거두면서 위기를 맞기도 했다. 당시 타자처럼 일일이 명령어를 쳐넣는 도스 대신 마우스를 움직여 화면 속의 명령어 버튼을 클릭하기만 하면 되는 맥킨토시의 운영 방식은 세계인들에게 엄청난 인기를 끌었다. 게이츠의 사업 수완은 여기서 빛을 발했다. 애플의 장점을 흡수, 1995년 마우스를 눌러 프로그램을 실행시키는 '윈도'를 개발해 내놓았고 이 때부터 윈도는 인터넷을 여는 '창'이 됐다. 이어 98, XP, 비스타 등 윈도 시리즈를 잇따라 내놓으며 컴퓨터 황제의 입지를 다졌다. 애플 제품을 그대로 베끼는 모방도 서슴지 않는 탓에 비판도 많았다. 스티브 잡스는 "게이츠가 내 아이디어를 훔쳐 성공을 거뒀다"며 비난했다. 이같은 비판에도 불구하고, 그는 게임·음악·콘텐츠 등 다양한 분야에서 아이디어와 사업 수완을 바탕으로 많은 돈을 벌어들여면서 세계 젊은이들에게 가장 존경받는 인물로 주목되고 있다. 존경받는 이유는 또 있다. 공익 사업이다. 그는 재산 90%를 사회에 환원하겠다고 공언했고 부인 멜린다와 '빌 앤드 멜린다 게이츠' 재단을 설립, 매년 엄청난 돈을 내놓고 질병 연구·연구활동 지원, 난치병 어린이 돕기 등 끝없는 자선 활동을 벌이고 있다. /김지윅기자 dok2000@kwangju.co.kr



뉴스퀴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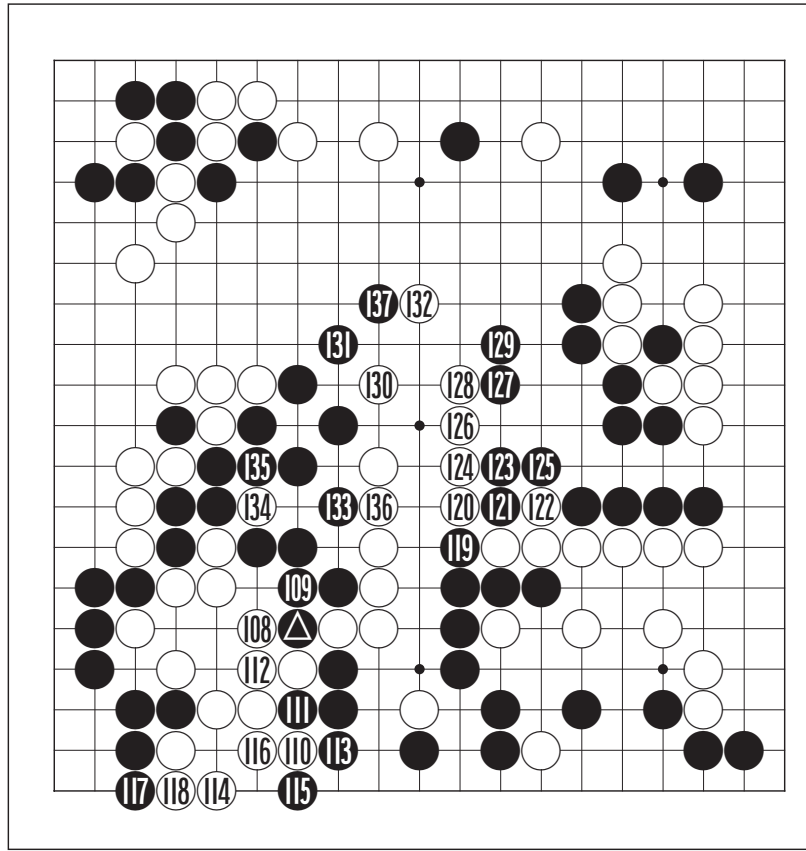
86. 교육부가 2008학년도 대학 수능능력시험을 앞두고 수능 부정행위 방지를 위한 대응체계를 본격 가동했습니다. 교육부와 시·도 교육청은 수능 부정행위 신고센터를 홈페이지에 개설, 운영에 들어갔으며 시험장 반입 금지 물품을 휴대하는 경우 부정행위로 간주하기로 했습니다. 다음 중 시험장 반입금지 물품이 아닌 것은 무엇일까요?
① 신분증 ② MP3 ③ 전자사전 ④ 휴대용 전화기

참여 방법

정답을 표시한 뒤 매주 일요일까지 신문을 오려 보내 주시면 2주마다 당첨자를 선정, 1위 삼성전자 고급 진공청소기 1대, 2위 무등파크호텔 숙박권 1매를 보내 드립니다. (연락전화번호 미표기시 추첨에서 제외)
보내실 곳 : 광주시 동구 금남로 2가 20-2번지 광주일보사 여문매체부 퀴즈담당자 앞 우편번호 501-711

知天命이 보는 오늘의 운세 10월 24일(음 9월 14일 辛卯)

Table with 12 rows representing the zodiac signs (子, 丑, 寅, 卯, 辰, 巳, 午, 未, 申, 酉, 戌, 亥) and their corresponding horoscopes for the day.



최강부 준결승 2국 백 심재욱 6단 흑 노기철 5단
119로 나와 끊는 것이었다. 가운데의 백을 강력하게 공격하여 이제까지 흑이 중앙에서 시달린 보복을 하겠다는 것이다. 상대의 강력한 공세에도 심재욱 6단은 별로 걱정을 안하는 모습이다. 왼쪽의 흑 대마도 미생이어서 수습이 가능하다는 판단이다. 과연 백이 124로 모양을 잡고 126으로 늘고 보니 마땅한 공격수단이 보이지 않는다. 흑 127은 자중할 수. 이 수로는 기본 같아서 '참고도'의 흑 1로 씌워 공격하고 싶지만 백 2다로 두는 수가 삶의 맥점으로 깨끗하게 살아 있으며 노기철 5단도 이것을 잘 알고 있다. 노기철 5단의 진짜 노리수는 흑 <오규철 9단·본보 바둑해설위원>

바둑소식
허영호-박승화, 1위 재대국
허영호 6단이 23일 스카이 바둑TV 스튜디오에서 열린 제11기 SK가스배 신에프로10결전 A조 리그 마지막 대국에서 은소진 4인에게 206수 만에 불계승을 거뒀다. 1승을 추가한 허영호 6단은 현재 A조 1위인 박승화(4승1패) 2단계 동률 재대국을 통해 최종 1위에 오를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다. B조의 1위는 윤준상 6단과 김수용 2단의 동률재대국 결과에 따라 결정된다. 이 대회는 각 조 리그 1위를 차지한 두 기사의 3번기로 최종 패권을 가리며, 나머지 동 순위 기사들끼리는 순위 결정전을 통해 10위까지 순위를 정한다. 우승상금은 1천만원.

굿모닝 잉글리쉬 <1018>
You had better get off~.
~에서 내리시도록 하세요
A: Excuse me, dose this bus go to Central Park?
B: Oh, you are going in the opposite direction. Didn't you check the bus number?
A: No, I was in a hurry. What should I do?
B: Well, you had better get off at the next stop with me. I think it's better to take a subway.
A: 실례합니다, 이 버스가 센츨럴 파크로 갑니까?
B: 아, 택은 반대방향으로 가고 계십니다. 버스번호를 확인하셨습니까?
A: 아니요, 제가 급했거든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B: 음, 택은 저하고 다음 버스 정류장에서 내리시도록 하죠. 제 생각에는 지하철을 타시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 Excuse me, ~ : 여보세요, 실례합니다만
* in a hurry : 급한, 서둘러서
* should =had better
* take a subway : 지하철을 타다

오하오우 니혼고 <1018>
よくお似合(にあ)いですよ。
아주 잘 어울려요.
A: とても素敵(すてき)なネクタイですね。誰(だれ)にもらったんですか。
B: 誕生日(たんじょうい)わいに家内(かない)が買(か)ってくれたんだ。
A: へ、奥(おく)さんセンスがいいですね。よくお似合(にあ)いですよ。
B: 僕(ぼく)はファッション感覚(かんかく)ゼロだから、いつも家内(かない)に任(まか)せてるんだ。
A: 아주 멋진 넥타이에요. 누구에게 받았어요?
B: 생일 축하로 아내가 사다줬어.
A: 에~ 사모님 센스가 좋네요. 아주 잘 어울려요.
B: 나는 패션감각이 제로여서, 언제나 아내에게 맡기고 있지.
素敵(すてき)だ: 멋지다
誕生日(たんじょうい)わい: 생일 축하
家内(かない): 아내
もらう: 받다

니하오 풍구워 <208>
返程机票
돌아가는 비행기표
A: 我们(wo men)十一点(shi yi dian)准时(zhun shi)到机场(dao jichang)接你们(jie ni men).
Women shi yi dian zhunshi dao jichang jie ni men.
B: 好的(hao de), 谢谢(xie xie).
Hao de, xie xie.
A: 要我(wo)给你(gi)们(men)预定(yu ding)返程(fan cheng)机票(ji piao)吗(ma)?
A: 要我(wo)给你(gi)们(men)预定(yu ding)返程(fan cheng)机票(ji piao)吗(ma)?
B: 好的(hao de), 请(qing)预定(yu ding)星期(xing qi)五(wu)十二点(shi er dian)的(de)返程(fan cheng)机票(ji piao).
Hao de, qing yu ding xingqiwu shierdian de fancheng jipiao.
A: 우리가 11시 정각에 공항에서 너희를 마중할게.
B: 좋아, 고맙습니다.
A: 내가 너희를 마중하러 가는 비행기 표를 예약했잖아?
B: 응, 토요일 12시 비행기로 예약했어.
返程机票 [fan cheng ji piao] 돌아가는 비행기 표
准时 [zhun shi] 정각

한자 이야기 <635>
歸蜀道(귀족도)
돌아갈 귀, 촉나라 촉, 길 도
귀족도(歸蜀道)는 글자 그대로 하면 '촉나라에 돌아가는 길'이 되지만, 두견새나 접동새, 소쩍새 등을 지칭하는 새 이름이다. 시인 서정주는 '귀족도'라는 제목의 시에서, "전략(前略)-초통에 불발지친 발하늘/굽이굽이 은하를 목이 짚은 새/처마 아니 솟는 가락 눈이 감겨서/제 피에 취한 새가 귀족도 운다/그대 하늘 끝 호을로 가신 일아"라고 노래하고 있다. 이 귀족도에 촉나라가 망한 후 촉나라로 돌아갈 수 없음을 통곡한 촉나라 충신의 님이 변해서 귀족도가 되었다는 전설이 있다. 또 한편으로는 촉(蜀)나라의 망제(蜀魂)에 얽힌 이야기가 있다. 이름이 두우(杜宇)인 망제에게 어느 날 물에 빠져 죽은 시체가 나타나 떠나려 오더니, 눈을 뜨고 살아났다. 망제는 그를 데려다 정승으로 삼아 나라 일을 맡겼다. 그는 별명이라는 사람으로 뒤에 자신의 딸을 망제에게 시집보내고 권력을 마음대로 하다가 결국 망제를 나라 밖으로 몰아내고 자신이 왕이 되었다. 하루아침에 나라를 빼앗기고 쫓겨난 망제는 그 원통함에 죽어서 두견새가 되어 밤마다 불어귀(不如歸)를 부르짖어 목구멍에서 피가 나도록 울고 또 울었다고 한다. 그래서 그 새를 '원조(怨鳥)', '두우(杜宇)', '귀족도(歸蜀途)', '망제혼(蜀帝魂)'이라고 한다.